

■ 교회소식 ■

1. 특강 : 오늘 오후에 특강이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일하는 김세진 교우가 강의합니다.
2. 떼제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8월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3. 몽골은총의숲 방문 : 환경부가 8월 2일-7일 일정으로 몽골 은총의 숲에 다녀옵니다.
4. 신앙실천 : 촌철살인(寸鐵殺人), 한 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기 있는 말을 하도록 힘씁시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유아유치부 : 7월 8, 15, 22, 29일 (교회)
 아 동 부 : 8월 19-20일 (강화 베로니카네 집)
 중 고 등 부 : 7월 27-29일 (파주 쇠꼴마을)
 청 년 부 : 8월 17-19일 (용인 향린교회 수양관)

다음 주 설교 본문	시51, 요6:24-3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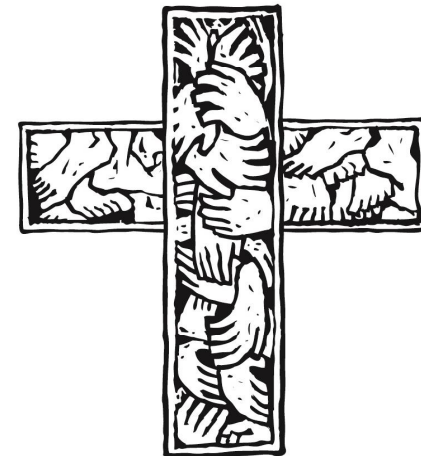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이범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이범석	김재흥	송동준	

8월	1부 영접위원	박명제	헌금위원	서미경
	2부 영접위원	이한림 정원석 박석희 고숙이 김현영 조항미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미영		

오늘 식당 봉사	이소애 이소혜 박유경 김지현 김해선 남인자 강세기 김성우		
다음주식당봉사	안홍숙 이증자 이수정 노성희 정현주 최재욱 안종일 홍순구		
오늘설거지봉사	청년부	다음주설거지봉사	청파7속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8월)	다음 주 주차봉사	김정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0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35. 큰 영화로신 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불같이 내리쬐는 햇볕에 풀이 죽은 이파리처럼 기운을 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특히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한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뜨겁게 달구어진 이 땅 위에 시원한 빗줄기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모두 기운을 차리고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가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맑고 투명함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아파할 줄 아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염치와 예의를 아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130:7,8 인도자
 ▲ 교 독 문 71. 이사야 55장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박범희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435.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함께
 ▲ 성경봉독 사 25:6-9 I. 인도자
 II. 광상준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마중물 찬양대
 II. 누가 네 문을 두드리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대정 강세기 이소애 권혁래 김기석 김희우 김성순 김성아 김성우 박유경
 김수경 김영읍 김영희 김은옥 김정규 이종옥 김정수 정자현 김종성 김지윤
 정영우 김지현 김현동 오유경 김혜라 노신후 박석희 조항미 박인혁 고숙이
 박준희 이기분 서이순 신현일 심해성 안길상 이형숙 안미숙 윤성종 김윤정
 윤정득 이광석 이경희 이수자 이순용 김신실 이완구 이유진 이재삼 전정현
 이재우 배이화 이지원 이지하 이진영 한양미 이치림 강상연 이호원 임고운
 오재형 임승동 백혜숙 임형욱 장동훈 정은선 전아영 전은택 정다운 홍예선
 조두희 오연훈 조수아 주은경 최미자 최은미 하현일 김광우 허명선 홍소형
 무명2

감사헌금

강혜린 권경혜 권정이 김금순 김나름 김민철 황은미 김반야 김성수 김정근
 박도훈 박영림 박재영 이현정 박진주 이건호 윤영주 이상도 임선아 윤선호
 임혜진 장현희 정구봉 채일석 최병민 서지연 최혜정 무명3

생일감사헌금

안정숙 이지하 최형민

녹색꿈헌금

김치연 손진선 오민용 유성만 유선재 윤미경 윤수진 임형욱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냐

- 장혜영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냐
연약한 존재들은/ 비밀을 안고 있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비밀/ 그런 아름다운 비밀

아름다운 것들은/ 쉽게 부서지고
되돌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네
신비로운 것들은/ 꿈결속에 사라지고
되돌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네

연약하다는 것은/ 용감하게 산다는 것
한 가닥 실바람에도/ 온 마음을 내주는 것
연약하다는 것은/ 외로움을 안다는 것
모두가 함께일 때도/ 애써 혼자가 되는 것

설명하려 할수록/ 외톨이가 되네
오후의 햇살도/ 너에겐 달질 않네
하지만 그 모든 몸짓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며시 감싸네/ 이름 모를 사람도

아름다운 것들은/ 쉽게 부서지고
되돌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네
신비로운 것들은/ 꿈결속에 사라지고
되돌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네

말씀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서로 눈물은 닦아 주고 즐거움은 나누며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다함께:	아멘. 때때로 나만의 즐거움과 슬픔에 빠져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상을 잔치하듯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특강 / 김세진 교우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찬양과 기도회

■ 믿음으로 읽는 글 ■

몽골 은총의 숲을 통한 새로운 선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지구 표면의 1/3에서 이미 사막이 되었거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태로 진행된다면 2100년엔 지구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호주와 스페인의 사막화, 그리고 몽골의 사막화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환경의 역습

지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생태적 위기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해빙과 해수면 상승, 폭풍과 해일, 질병의 확산, 생물종의 멸종, 곡물생산량의 감소 등 환경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지구적인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거기에 공기와 수질 악화, 토양의 오염, 방사능 오염, 쓰레기 문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환경오염의 원인은 불행하게도 인간이다. 창조의 꽃인 인간의 방만한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인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켰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침팬지 연구가 제인 구달 박사는 환경재앙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자연의 재생능력과 인간의 두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인간의 불굴의 열정이 지구 생태계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막화를 막으려고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전 케냐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왕가리 마타이 교수는 30년 동안 나무를 심었고 아프리카에 희망을 주었다. 그로 인해 200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말했다. “전 인류가 평생 10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숲의 기능

숲은 곧 자연이다. 숲은 자연의 공간이며 모든 나무 자원의 보물창고이며 거대한 산소공장이다. (숲 1헥타르에서 44명), 숲은 공기 정화기이며 (연간 1ha의 침엽수는 약 40톤, 활엽수는 68톤의 먼지를 정화함).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방음벽이고 천연의 녹색담이자 거대한 정수기이다. 숲

은 자동으로 가동되는 재해방지센터이며(방풍림) 우리의 쉼터이자 건강증진센터요. 온갖 동물들의 보금자리이다. 숲은 문화의 산실이며 배움터요, 놀이터이며, 자본이다. (경제적 가치 연간 50조원)

은총의 숲 프로젝트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는 전 국토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강력하면서도 시급한 대처가 없으면 나라가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이다. 사막화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원인이므로 선진국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청된다. 몽골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막화를 해결해 줌으로 선교환경을 조성한다. 이웃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지구 생태계를 살릴 수 있으며 몽골의 초목화로 사막화를 저지하며 황사를 줄일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고 아시아와 한반도의 사막화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숲은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목재와 종이 등 삶의 유용한 것을 준다. 숲은 새와 짐승의 거처가 되며 열매로 생명을 살리게 되며 산채, 약초, 허브 식물 등 생물다양성을 확장시켜 준다. 수자원을 보전하고 약초와 산채는 주민 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녹지 공간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주며 뜨거운 여름 주변 온도를 낮춘다. 아울러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선교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지구 생태계를 살릴 수 있으며 몽골의 초목화로 사막화를 저지하며 황사를 줄일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고 아시아와 한반도의 사막화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숲은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목재와 종이 등 삶의 유용한 것을 준다. 숲은 새와 짐승의 거처가 되며 열매로 생명을 살리게 되며 산채, 약초, 허브 식물 등 생물다양성을 확장시켜 준다. 수자원을 보전하고 약초와 산채는 주민 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녹지 공간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주며 뜨거운 여름 주변 온도를 낮춘다. 아울러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선교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 양재성, “은총의 숲 세미나”에서